

‘문학 성찬’ 즐기며 문학관 산책

목포문학관, 12월까지 소설 창작반·캘리그래피반 등 프로그램 운영

목포시가 올해 하반기 목포문학관에서 다양한 문학 교육과 행사 등 다채로운 문학 프로그램을 연다. 목포문학관은 하반기 교육프로그램을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

주요 강좌로는 ▲성인대상 문예대학 사·소설 창작반 ▲초등학생 대상 어린이 문학교실 동영상 제작반, 독서·캘리그래피반 ▲실버층(65세이상) 대상 ‘찾아가는 문학관’ 등이 있다.

문예대학은 시인 김선태 목포대 교수가 지도하는 시창작반(매주 금요일 오전 10시)과 소설가 채희운 전 광주주예대 교수가 지도하는 소설 창작반(매주 수요일 오후 2시)이 진행된다. 이달 강좌별로 성인을 대상으로 30명 내의 인원을 모집해 운영한다. 문예대학 강좌는 글쓰기 작업, 합평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창작 이론과 실기를 지도한다.

어린이문학교실(월 3회·토요일 오전 10시)은 초등 고학년(3-6학년)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글쓰기를 활용한 동영상 제작반, 전학년을 대상으로 독서명언 쓰기인 독서·캘리그래피반을 진행한다. 각 강좌당 20명 내의 인원을 모집해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

특히 지역 내 문화소외계층의 문학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찾아가는 문학관’을 진행한다.

목포문학관 상주작가인 조기호 시인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애담을 문학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글쓰기와 작품낭독을 지도한다. 목포시노인복지회에서 8월부터 9월까지 2달간 무료로 진행한다.

2024 상주작가 지원사업 (문체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으로는 현재 목포문학관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동시반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 동시반을 운영 중이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문학교육프로그램 수강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목포문학관 누리집에서 선착순 신청할 수 있고, 수강료는 강좌별 4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목포문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올해 두 번째 개최되는 ‘시월에 문학여행’이 ‘목포 골목길 문학축제’라는 이름으로 북교동 골목길 일원에서 오는 10월 5일부터 6일까지 개최된다. 차범석 탄생 100주년 행사를 비롯해 문학의 고장 목포의 다양한 문학콘텐츠를 전시, 행사, 공연 등으로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문학 소외 계층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문학관을 운영하고 목포만의 특별한 문학콘텐츠로 시월에문학여행 골목길문학축제를 개최해 문학의 도시 목포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장봉식 기자 jbs@kwangju.co.kr

우슬 맨발 산책로·군민광장 음악분수...해남 ‘힐링명소’로 인기

해남군이 새롭게 조성한 우슬 체육공원 맨발 산책로와 군민 광장 음악분수가 여름철 힐링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2월 우슬체육공원 인근 1km 구간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했다.

우슬저수지를 돌아 우슬체육공원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는 질 좋은 해남 황토를 깔아 맨발로도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다른 지역의 맨발 산책로에 비해 부드러운 황토 감촉이 특징이며 최근에는 질척이는 황토에서 발마사지도 할 수 있도록 황토 습식 체험장을 조성했다.

우슬 맨발산책로에는 새벽 출근을 앞둔 직장인에서부터, 오전·오후 시간대에는 주부와 어르신, 저녁에는 가족 단위 주민들까지 하루 수백 명이 이용하고 있다.

해남군은 야간 산책을 위한 가로등과 세족장, 신발 보관함, 화장실 등을 확충하고, 보행로와 안전 시설을 정비했다.

앞서 해남군민광장에 조성된 음악분수에 대한 반응도 뜨겁다.

군은 군민 광장에 위치한 원형 분수대를 철거하고, 총 65m 길이의 분수 시설을 확장했다.

군민 광장 분수 시설은 주간에는 바닷분수 등 어린이 물놀이터로 운영하고, 야간에는 음악분수로



해남군이 조성한 우슬 맨발 산책로 습식 황토체험장.

개방해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음악분수는 조명과 음악이 분수 물줄기와 동시에 제어되는 최신 공법으로, 물과 빛, 음악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유난히 어

려운 여름나기를 하고 있는 군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휴식처가 확충돼 반응이 매우 좋다”며 “앞으로도 군민 행복을 우선으로 행복한 해남살이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멸종위기 ‘참달팽이’, 원서식지 신안 하태도에 방사

군, 국립생태원과 인공 증식

신안군이 국립생태원과 공동으로 인공 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참달팽이 18마리를 하태도 원서식지에서 방사했다고 12일 밝혔다.

혁신면 태도리에 속한 하태도는 목포에서 남서쪽으로 약 120km 정도 떨어져 있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2018년 흉도에서 도입한 참달팽이 5개체를 통해 국내 최초로 기초생활사를 규명하고 인공증식에 성공해 흉도와 하태도에 두 차례 자연 방사한 바 있다.

이번에 방사된 참달팽이는 민가 인근 산지 초입에 방사되며 방사 개체에 식별 번호표를 부착해 생존율, 성장률 등 자연 적응성을 파악하고 주변 서

식지 위협요인의 활동을 조사 분석할 계획이다.

하태도 주민과 탐방객에게는 참달팽이 소책자를 배포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 중요성을 홍보했다.

소책자에는 참달팽이의 기본정보와 유사종과 비교 그림 등이 사진 형식으로 제공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방사는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자원을 확보하고 보전하기 위한 노력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참달팽이 방사를 계기로 교육·홍보를 통한 자발적인 참달팽이 서식지 보호 유도과 관광자원 활용을 위해 상호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신안 하태도에 방사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참달팽이.

2025 섬의 날 행사, ‘해양치유의 섬’ 완도에서 열린다

신지도서 내년 8월 8일 개막

“내년 섬의 날 행사 완도에서 열립니다.”

“제6회 섬의 날” 행사가 내년 8월 8일부터 8일 동안 ‘해양치유의 섬’ 완도에서 열린다.

완도군에 따르면 김현철 완도부군수가 지난 11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제5회 섬의 날’ 행사 폐막식에서 김동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섬지역 기초단체협의회 깃발을 전달받고 내년도 완도 행사를 알렸다.

김현철 완도군 부군수는 “완도는 섬마다 지닌 관광자원을 특화해 국내에서 유일한 치유의 섬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섬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군은 섬의 날 행사가 열리는 보령시를 찾아 해양치유 등을 알릴 전시관을 운영했다.

완도군은 265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4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와 청산도와 보길도, 생일도 등 6개의 섬이 선정될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섬이 많은 곳이다.

특히 행사 주 무대인 청정 해변인 신지 명사십리



완도군이 충남 보령에서 열린 제5회 섬의 날 폐막식에서 섬지역 기초단체협의회 깃발을 전달받고 있다. <완도군 제공>

해수욕장과 더불어 청해진 유적지, 국내 최초 개관한 완도해양치유센터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역사 자원, 해양 치유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 2회에 걸친 ‘국제해조류박람회’와 ‘전남 정월

페스티벌’,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장보고수산물 축제’, ‘제13회 수산인의 날’과 ‘김의 날’ 등 국제·국내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왔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광 백수해안도로에 도로명주소 표지판 설치



영광 백수해안도로 데크길 도로명주소.

긴급상황 때 위치 파악 용이

영광의 명소인 백수해안도로에 도로명주소 표지판이 설치됐다.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3월 백수해안도로에 도로명이 부여된 후 지난달 8일부터 이달 6일까지 도로명주소 표지판을 설치했다.

표지판은 백수해안도로 데크길에 설치돼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대응을 위해 설치됐다. 아광 재질로 야간에도 편리한 시야 확보가 가능하다.

영광군 관계자는 “산책로에 도로명을 부여해 편리한 위치 정보 제공으로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영광의 명소로 더욱 발전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영광=김창원 기자 kw@

해남 땅끝순례문학관서 전국 첫 ‘영상 시’ 공모전

해남 출신 시인 작품 재해석...MV·브이로그 등 9월 한 달 동안 응모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이 전국 최초 ‘영상 시’를 콘텐츠로 한 공모전을 실시한다.

‘영상 시’는 시 작품을 재해석해 영상으로 표현한 작품을 말한다. 해남 출신의 모든 시인들의 시 작품 중 한 편을 골라 시에 드러난 이미지, 은유, 감각, 감정, 상상력 등을 영상으로 연출 및 재해석한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극영화, 다큐,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브이로그 등 장르의 제한은 없으나 단 작가명과 시 원문, 출처는 반드시 자막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번 공모전은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 발맞춘 문학 향유의 새로운 모델로서 문학과 영상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 ‘시문학의 고장 인문 해남’의 위상과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응모는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할 수 있으며, 관심있는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출품 요강 확인 후 신청서



해남 땅끝순례문학관.

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lee181020@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주제 적합성과 창의성, 완성도, 활용 가능성 등 심사항목에 의거해 전문가 심사 후 총 8명을 선정해 시상한다. 총 상금은 1000만원 상당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시적 감성이 가득 담긴 영상시 콘텐츠를 통해 해남 시의 숨은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진도개 굿즈 인형 ‘돌백’ 11월 선보인다

진도군, 상표·디자인 출원 등록 가방 장식고리·차량용 방향제 등

진도군이 진도개의 우수성 홍보와 산업화 목적으로 진도개 인형 ‘돌백’의 상표와 디자인 출원 등록을 마치고 오는 11월에 출시한다.

‘돌백(DOLBACK)’은 ‘돌아온 백구’의 줄임말이자 영어 발음 Doll(인형)의 의미를 함께 갖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방 장식고리와 차량용 방향제로 사용토록 개발됐다. 진도군에서 직영하는 진도명품관광 진도아리랑물 등에서 시판될 예정이다.

진도개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1967년 한국진도견보호육성특별법 제정으로 국가 차원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2005년에는 영국켄넬클럽(KC)과 세계견연맹(FCI)에 등록된 품종으로 한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으로 따르는 충성심과 귀소성이 다른 품종보



진도개 인형 ‘돌백’.

다 강해서 많은 애견인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진도군에서는 2012년에 ‘진도개의 날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매년 5월 3일 진도개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1977년부터 매년 10월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가 열리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본격적인 진도개 산업화를 위해 진도개 인형 ‘돌백’에 이어 내년에는 진도 농수산물을 활용한 반려동물 사료를 개발해 군민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65개 언어 번역”...진도군, AI 통·번역기 설치

군청·민원실 등 8개소 비치

진도군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의견을 수렴해 외국인 대상 민원편의 서비스를 위한 인공지능(AI) 통·번역기를 군청, 읍면 민원실 8개소에 1대씩 비치했다.

외국어 통·번역기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전자기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65개 언어 음성 지원과 12개 언어 이미지 번역(번역할 언어를 선택해 촬영하면 이미지의 문자를 설정 언어로 번역)이 가능하다.

그동안 외국어 통역 서비스 도우미가 없어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통·번역기 비치로 신속

한 민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으며, 언어장벽 해소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인 2024년 6월 말 기준 2279명이다.

이번 통·번역기 서비스 제공은 다양한 국적의 인구 유입에 따른 맞춤형 행정서비스 실현하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행정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외국인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시책 발굴·서비스 도입에 앞장설 것”이라며 “외국인뿐만 아니라 진도군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